

사회연대경제 토론회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2025.12.11.(목) 13:30-15:3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사회 김선영 | 재단법인밴드 이사

발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문진수 |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연대와 금융 생태계 구축의 주춧돌, 지역기반 공제사업
하재찬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

토론
이다운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김지영 |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
문성식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
김남철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차장
이미현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회적금융지원팀장
최서영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
최재학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재단법인밴드·(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재)대구사회가치금융·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사)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재)느티나무재단·(사)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사)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사)경기자활기업협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한국사회주택협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주관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 재단법인밴드

식 순

시간	내용	
13:30-13:40	개회	축사, 사진촬영
13:40-14:20	발제	<p>[발제1]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공제사업의 활성화 방안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p> <p>[발제2] 연대와 금융 생태계 구축의 주춧돌, 지역기반 공제사업 하재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p>
14:20-15:00	지정토론	<p>이다운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p> <p>김지영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p> <p>문성식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p> <p>김남철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차장</p> <p>이미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회적금융지원팀장</p> <p>최서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p> <p>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p>
15:00-15:25	종합토론	청중 전체 토론
15:25-15:30	폐회	마무리

축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가 재단법인밴드와 함께 준비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주최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각 지역·부문·업종의 공제운영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사업은 연대와 협동의 가치 위에서 움직이는 사회연대경제 운영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실제 공제사업은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고, 해외에서는 시민의 안전망은 물론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제사업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정부 정책 또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17개 공제운영기관은 지역과 업종, 부문 곳곳에서 스스로 상호부조의 토대를 일구며 안전망을 넓혀 왔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현장에서 먼저 길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공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이 쌓아온 상호부조 시스템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중물 자금' 공급, 지역 기반 공제사업 기반 구축, 립스(LIPS) 등 중기부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별도 트랙 마련 등을 포함한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모범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신협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장하고, 공제사업이 사회연대경제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책임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 하정은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별·업종별·부문별 현장에서 공제기금과 자조기금을 성실하게 운영해오신 공동주최 기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자리를 공동주관해 주신 용혜인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구조’를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경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국 곳곳에서 공제사업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대의 가치를 실제로 실천해 온 많은 조직과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밴드는 그 과정에서 각 기금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 작은 손과 발이 되고자, 공동사무국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기금 조성부터 실무 운영, 대출 심사, 회계·법률 지원까지 함께하며 “현장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정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조성한 자조기금들은 정부의 공급 중심 금융정책이 당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간이 스스로 안전망을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여러 지역, 업종, 부문별 공제의 사례들은 연대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 사회연대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토대입니다.

이제는 이 작지만 단단한 성과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제사업이 제도적 미비 속에서도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아온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응답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기반 공제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 초기 마중물 자금 공급, 행정적·법적 인프라 마련 등이 함께해 준다면, 현장 주체들이 쌓아온 상호부조의 경험은 훨씬 더 풍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밴드 역시 오늘 토론회의 취지처럼, 각 지역·업종·부문의 공제기금이 더욱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사무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의 자조와 연대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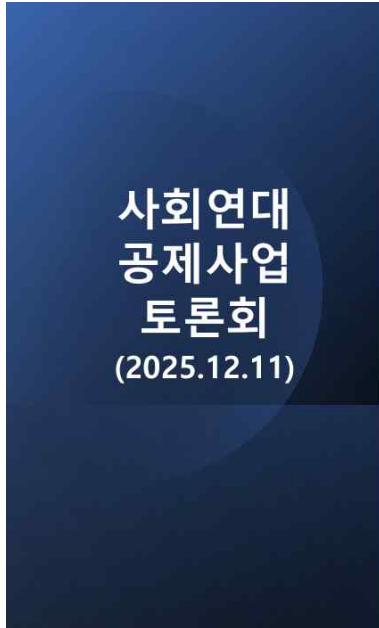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기꺼이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가 한국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1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금융연구원
SINCE 2012

 사회적금융연구원
Social Finance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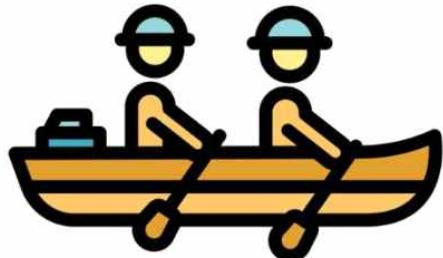


반갑습니다.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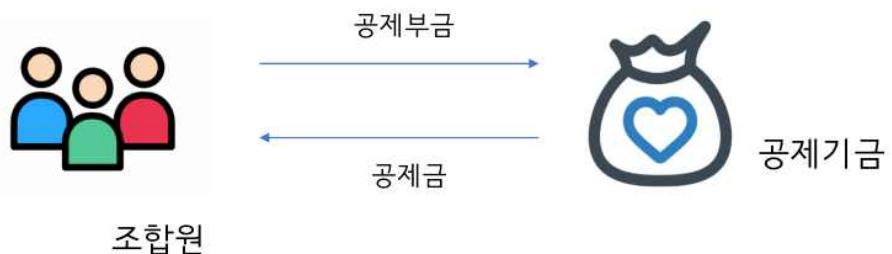
공제

共濟
함께 건너다



공제사업

: 구성원이 낸 자금을 적립, 필요시 도움을 제공하는
공동분담 + 공동혜택의 보장 사업



기본원리

도울 부 도울 조

상호부조 (相互扶助)

: 개인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구성원들이 함께 **손실**을 분담하고 돋는 것

시장 금융

: **배제**^(*)와 **선별**^(**)의 원리

(*) 융자 : 선 밖으로 밀어내기 (red lining)

(**) 투자 : 뜰뜰한 × 밀어주기 (stock market)

관계형 금융

: 포용^(*)과 신뢰^(**)의 원리

(*) 선 안으로 끌어들이기 (financial inclusion)

(**)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community spirit)

사례(1)

빵 기금



- ✓ 독립사업가들의 안전망 (네덜란드)
: 빵 기금 (Bread funds)^(*)
: 자영업자&프리랜서들이 결성한 협동조합 (2006년)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조합원 지원
: 지역 기반의 상호부조 & 돌봄 체계 (200개+)
- ✓ 현황
: 소규모 공동체(25~50명)로 운영
: 단체 수 677개, 회원 수 31,810명 (2025년말 기준)
: 연합회(Broodfonds Makers) 설립 (2010년)^(**)

(*) 정식 이름, 더치 브루즈폰즈(Dutch Broodfonds)

(**) 1호 결성 후 4년이 지난 시점

broodfonds



✓ 참여 방식

- :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가'여야 함 (1인 기업 OK)
- : 기존 조합원의 추천 / 공개 설명회 참여 의무
- : 조합원은 월 회비와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 : 회비는 조합 및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
- : 공제부금(*)은 지원금의 원천이 됨

✓ 연합회 역할

- : 신규 조합 설립 시, 연합회가 결합+지원
- : 표준 약관 제정, 준수하도록 지도&관리

(*) 소득 수준에 따라 8개의 공제부금 선택할 수 있음

broodfonds

✓ 운영 방식

- :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첫 달, 본인 부담)
- : 최대 2년까지 연속 수급 가능(*)
- : 지원 대상 선정 및 계속 지원 여부, 조합이 판단
- : 의사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 X

✓ 특징

- : 상호신뢰에 기초한 연대의식, 공동체성 강함
- :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 지원대상의 99%가 2년 이내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제부금	지원금
33.75유로	750.00유로
45.00유로	1,000.00유로
56.25유로	1,250.00유로
67.50유로	1,500.00유로
78.75유로	1,750.00유로
90.00유로	2,000.00유로
101.25유로	2,250.00유로
112.50유로	2,500.00유로

사례(2)

SGAM



- ✓ 상호보험조합, 공제조합의 연합체 (프랑스)
: SGAM(Society Group of Assurance Mutual)(*)
: 소규모 상호보험조합, 공제조합의 지주회사
: 조직 간 연대/연합을 통한 규모화, 경영 효율화 추구 목적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2001년)
- ✓ 현황
: 프랑스 보총의료(**) 보험시장의 5할 이상 점유
: 상호보험조합, 공제조합, 민간 보험회사의 3분할 구도
: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고전 중

(*) 정식 이름 : Société de Groupe d'Assurance Mutuelle
(**) 공적의료 70%, 민간 보총의료 30% / 사업주 가입 의무화

코베아 그룹



- ✓ 연혁 / 현황
: 프랑스 상호보험조합 역사는 약 200년 (원년, 1819년)
: 3개 상호보험조합(*) 연합체로 출범 (2003년)
: 프랑스 내 자산, 의료, 재보험 분야 선두주자
: 고객 수 (1,130만 명 / France)
: 직원 수 (24,000명 / Global)
- ✓ 작동 원리
: 비영리 (가입자 권익 보장 ○, 주주 이익 창출 ×)
: 민주적 조직 운영 (1인 1표)
: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GMF, MAAF, MMA

시사점



: 연대의 연대, 의의와 중요성

Solidarity with solidarity

공제조합 / 공제회

FRIENDLY SOCIETY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동조합

연구자



SINCE 2014



SINCE 2017



SINCE 2021



SINCE 2025



상호 돌봄

2.1.2.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줘야죠” : 호혜의 선순환

“제가 150만 원 대출받았듯이 제가 꼭 필요할 적에 저한테 어떤 생명수 같은 어떤 그런 의미였듯이. 내 100만 원으로 말 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참여자20).”

“저는 활용을 잘했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런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줘야죠(참여자27).”

노동공제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 (2024. 풀빵)

사회연대공제



- ✓ 자조금융
- ✓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적용 가능
- ✓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금융 안전망
- ✓ 수익성 금융상품 대비 많은 편익 창출
- ✓ Not 대수의 법칙 but 공동체의 법칙
(이익 배당, 손실 공동책임)
-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 이익집단, 특별법을 통해 조합 운영
- ✓ 기본법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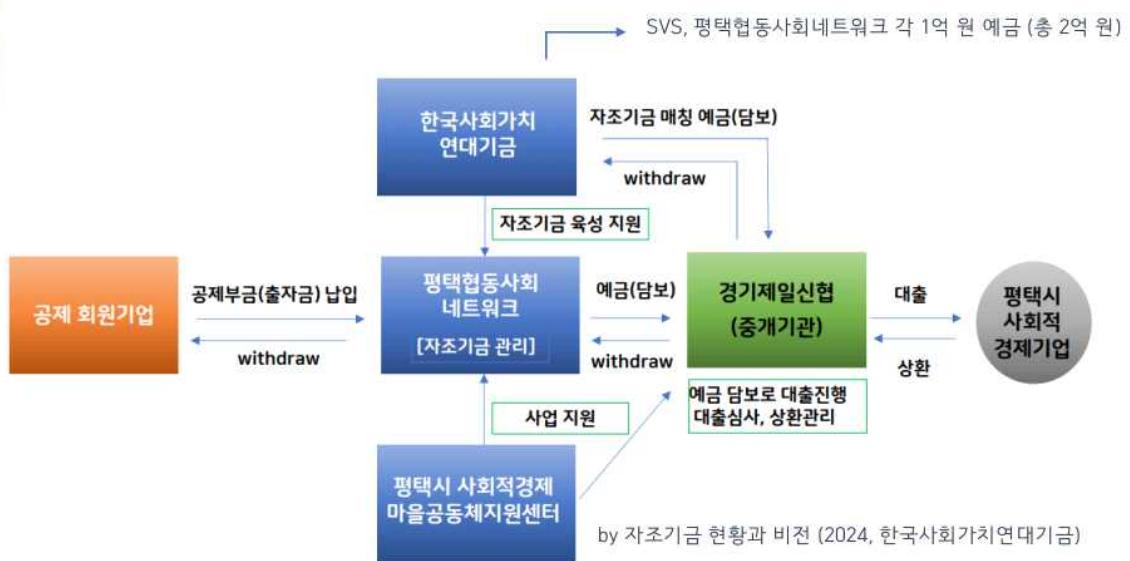
법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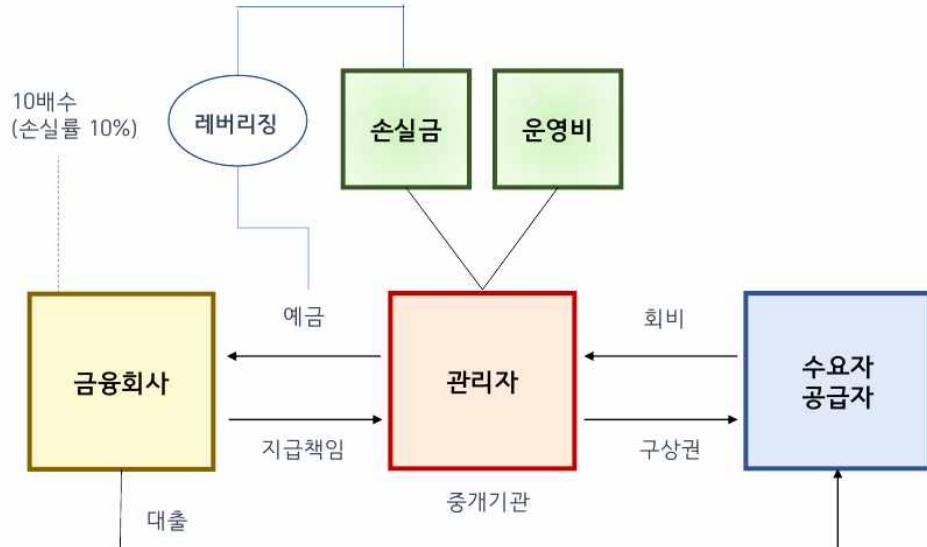
- ✓ 금융업은 '규제'와 '감독'이 따르는 영역임
- ✓ 협동조합 : 회원 간 상호부조 사업만 가능
- ✓ 사회적협동조합 : 출자금 내 소액대출 가능
- ✓ 노동조합 : 공제회 설립 가능
- ✓ 비영리법인 : 소액대출 지원사업 (*) 가능
- ✓ 등록 대부업체 : 법정 이자율 한도, 여신 가능
- ✓ 임의단체 : 이자 수취 시, 대부업법 위반 소지

(*)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에서 제외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택 사경



자조?



지역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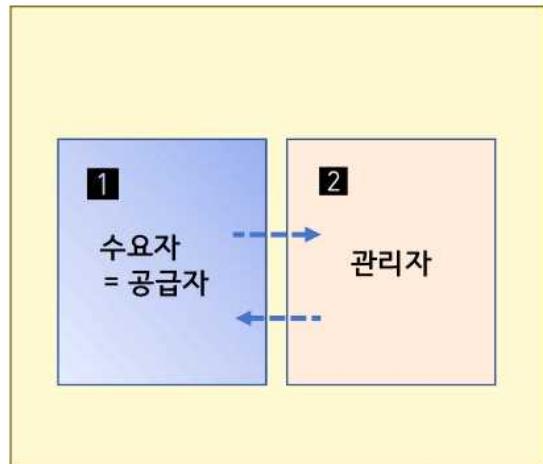


- ✓ 자원 한계 : 공제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 미달
- ✓ 지속 가능성 : 외부 자원에 의존하려는 심리 만연
- ✓ 정부 정책 : 일관성 부재 / 정치적 위험 내포
- ✓ 외부기관 활용 : 경험의 축적, 내재화 기회 상실
- ✓ 외연 확장 :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 협력의지 부족

→ 자조/자립의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도전 과제

- 1 수요자/공급자**
: 공동의 목표
: 편익 & 위험 공유
: 신뢰 & 유대관계
- 2 시스템 관리자**
: 규모화
: 위험 관리
: 비용 문제 해결



위험 관리



- ✓ '배후'를 살펴야 함
- ✓ 심사자의 판단이 중요 : 적절한 진단과 처방
- ✓ 정량 정보 + 정성 정보의 활용 (대안심사 체계)
- ✓ 대출의 핵심 관건은 상환능력 (복지와의 차이점)
- ✓ 공동체성이 변수 (상환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
- ✓ 상환지연에 대한 원칙 필요
 - : 돈이 아닌 사람을 바라봄
 - : 폭력적 추심이 아닌 기다림의 미학
 - : 공동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정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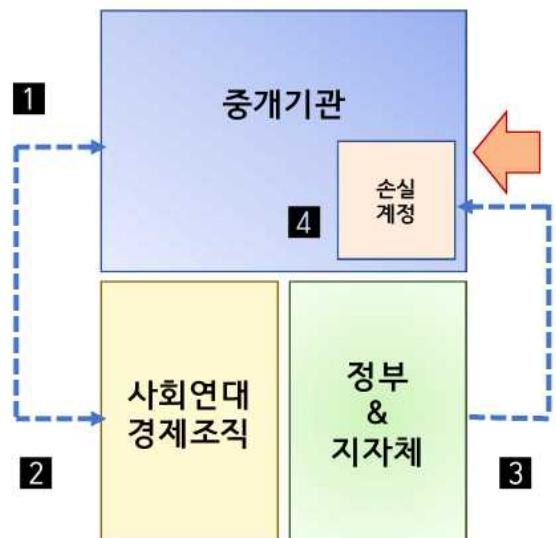
: **보충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

개인이나 단체, 지자체 등 소규모 사회 단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그 단위에 맡기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큰 단위(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

헌법 상의 일반원리임에도 현실에선 흔히 무시되며, 특히 사회정책 설계 시 중앙정부는 하위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정, 하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위험 이전

- 1 중개기관**
: 자금증개/손실부담
- 2 사회연대경제조직**
: 정상 상환/지연
- 3 정부&지자체**
: 재정투입/손실부담
- 4 손실 계정**
: 상환지연/대손처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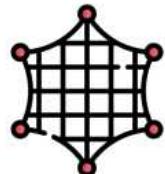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 공급 확대



1. 사회연대금융 지원기관 육성
: 인터넷 은행, 상호금융, 민관협력기금 등
2. 상호금융기관 금융 지원 독려
: 기금 조성, 이차 보전, 출자 허용
3.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평가
4.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확대
: 도매기금(대출/투자), 공적보증기관(보증)

사회연대공제 활성화

: 연대의 연대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1. 지역 기반, 사회연대 공제사업 활성화
: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연대로 !
2. 지역 경제주체 간 연대 및 협력 강화
: 필요/욕구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 수립이 관건
3. 축적의 시간 필요
: 축적된 경험 없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 축적의 시간 (2015)

감사합니다.

발제2

연대와 금융 생태계 구축의 주춧돌, 지역기반 공제사업

하재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연대와 금융 생태계 구축의 주춧돌, 지역 공제사업

문제는 오늘의 희망을 여는 열쇠이고
갈등은 내일의 도약을 돋는 발판이다

2025년 12월 11일

하재찬

GENDER
EQUALITY

목차

▪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개괄적 현황이 주는 과제
위기를 통해 확인된 과제
사회연대경제 명칭 변병이 주는 메시지
위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과제 해결을 위한 조건

▪ 사회연대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중앙회)

▪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 에필로그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2011년)
<데이비드 그레이버. 1961~2020>

GENDER
EQUALITY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개괄적 현황이 주는 과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다른 성장 경로를 가진 다양한 부문이 존재
: 생협,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
- 짧게는 십수년부터 20~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1년차 5년차 10년차 …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 개별 기업이나 조직 관점에서의 지원/육성에는 명확한 한계 존재.
- 새로운 정부 하에서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시대가 열림

GENDER
EQUALITY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위기를 통해 확인된 사회연대경제 과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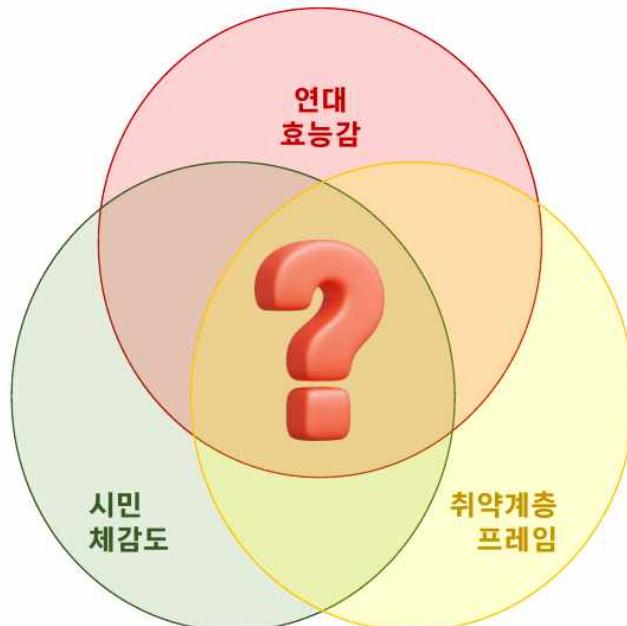
- 첫째, 공공에 의존하는 구조가 가진 취약성
- 둘째, 사회문제 대응이 개별 사회연대경제기업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모두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사회 문제 해결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규모화
또는 사업연합 등의 공동대응 필요.

본 내용은 김혜원(교원대) 교수가 2021년 <사회적경제의 미래 과제>란 주제로 본인(하재찬)이 상임이사로
역할했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현,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기초로
그 동안 활동하며 느낀 것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GENDER
EQUALITY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사회연대경제 명칭 전환이 주는 메시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GENDER EQUALITY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위기를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예방

- 위험 이해 및 제거
-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점검과 관리

대비

- 위기 감지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계획) 마련
- 응급 자원 확보(구호 물자 및 인력 등)
- 경험 및 연관된 위험 상황을 고려한 역량 강화

- 위기를 통해 확인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임.
-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위기에 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위기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예방임
- 위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 좋은 대응은 복구를 통해 위기 발생 전보다 더욱 위기 예방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임.

복구

- 위기 전 생활 회복 및 재발 방지
-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 물리적, 사회/정서적 지원
- 대응 체계 평가를 통한 예방 연계

대응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 발생 시 그에 따른 매뉴얼(계획) 작동
-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 활용
- 피해 지원

사회연대경제의 현재 위기를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첫째, 공공에 의존하는 구조가 가진 취약성
- 둘째, 사회문제 대응이 개별 사회연대경제기업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모두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사회 문제 해결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규모화 또는 사업연합 등의 공동대응 필요.
- ✓ 이전보다 위기에 강한 예방 관점의 생태계구축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복구 관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GENUS EQUALITY

과제 해결을 위한

조건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시민 참여에 기반한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판로 생태계 필요.
B2G 중심에서 B2G, B2B 그리고 B2C가 균형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 혁신 필요
- 소비를 통한 시민 참여를 넘어 사회연대경제 활동에 관여하는 연대활동 등 다각적인 접근 필요.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 조직, 자원봉사센터와 사회연대경제 간 연계, (자원봉사 자원이 풍부한) 비영리조직과의 연계, 기부 및 투자 활동 등
- 시민의 (가치 소비에) 참여 촉진을 위해, 기업이 가치 있는 일을 사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 문제를 소규모 기업 차원의 대응에서
규모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키워 내거나, 사회연대경제 조직간 협력을 촉진하는 자조 생태계를 통해 대응해야.
업종 내, 업종 간, 지역 내에서 사업 연합을 통해 개별 기업들이 가진 기업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사업에 모으는 것이 필요함.

GENUS EQUALITY

사회연대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기존 금융 생태계는 개별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음.
이런 금융 기능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의 성장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음. 이에 **금융생태계의 혁신이 요구됨.**
- ❖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업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동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것임.
- ❖ 소규모 기업들이 모은 자금에 한계가 있음.
사업협력을 통해 지역에 임팩트 있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기업가와 조직화된 기업 역량,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와 연합 리더십이 필요함.
>>> 기업공제를 촉진하고 견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마중물 사업 필요.
- 사업 연합의 리더십 구조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과 금융이 통합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사업 현장인 지역기반의 공제사업 필요

GENDEA
EQUALITY

사회연대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 사회 문제 해결이 개별 기업의 노력, 개별 기업의 성장만으로 어렵다는 것 이 분명함. 늘 중요했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는 **규모화와 협업화**임.
- 개별 기업 성장과 스타 기업의 등장도 중요하지만 **사업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에 대한 규모 있는 해결이 가장 중요함.**
- ✓ 규모화/협업화를 가로 막는 것은 사회연대경제기업 내부의 소모적 경쟁 임.
- 지역의 작은 시장을 놓고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때 지역의 문제 해결은 후순위로 몰리고 자기 조직의 생존이 우선 순위를 차지함.**
-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란 공감대와 인식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 임
: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을 전환한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축을 통한 부족한 연대효능감 극복**도 있음.

GENDEA
EQUALITY

사회연대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에 세개의 축이 사회연대경제를 떠받쳐야 함.

1. 기존의 지역 중심의 발굴/육성
2. 지역 중심의 금융체계 구축
3. 다양한 규모화와 협업화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

-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과 삶에 천착 커뮤니티금융(Community Capital) 활성화 필요

- 기후위기 문제는 글로벌 문제이기에 더욱 지역과 삶에 천착해야 함. 지역에서 일자리와 돌봄, 다양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커뮤니티 금융이 필요함. 이는 필요한 곳으로 카메라를 옮기는 카메라 박스와 같음.

GENDER
EQUALITY

사회연대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 규모화/협업화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금융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지역기반의 공동사업을 통한 지역기반의 금융(전달)체계 구축은 정부 의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민,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음.
-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공제**는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규모화와 협업화 모색 가능.
- 또한 공제조합에 의한 피어컨설팅(Peer Consulting) 등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즉 단순 대출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컨설팅과 자원연계 모두 가능함.
* 피어컨설팅: 동료 간의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 운영자금 대출이나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인수합병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활동을 추진해야 함.
- 형식적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이 아니라 실질 투자를 동반한 공동사업에서 또 하나의 파트너이자 투자자이자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함.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사회연대경제의 지역 기반 자주적 생태계 조성에 선순환하는 (금융)정책 개발 및 범 부처 관리

-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발굴과 초기 육성, 그리고 공공성과 사회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피함.
- 그러나 자주 비판을 받아 온 정부 의존성 및 제도 동형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여 정부(부처)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
 - 개별 기업과 조합관점에서 생태계 관점으로의 지원 기조 수립
 - 유형과 부문을 넘어 지역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기반 구축
 - 경영(management) 및 사회(social)활동에 필요한 사회적자본을 주축으로 하는 자금과 자원, 시장형성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공제사업 기반 지역전달체계 구축
- ✓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추진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서울 외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기반 부족

-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지역기반 사회연대금융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함. 이를 위해선 지역 스스로 행정과 운영 결정권 확대, 역량강화,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 현재 이러한 기반(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자주적 생태계 조성에 선순환하는 사회연대금융 개발 필요

- 정책자금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
 - ❶ 변동성이 큼. 중앙·지방 정부의 장이나 계획이 바뀔 경우 사업이나 정책이 축소/조건악화/종료되기까지 함.
 - ❷ <사회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과 <안전한 자금회수, 수익률 보장> 등의 조건이 상충되어 적시에 조달되지 못하거나, 장기적 관점의 개입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단됨.
 - ❸ 지원 받은 개별 기업에 매우 효과적임으로 의존성을 높이며, 연대·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경우도 종종 있음.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지역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는 물론이고 자원과 자본을 연결·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서울/경기 등에 비해 지역은 매우 부족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사업 논의가 활발하나 아래 3가지 요인으로 다음 계단을 오르지 못함.
 - ① 공제사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공제조합 구축 어려움
 - ② 공제사업에 대한 미진한 운영경험
 - ③ 공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인력 배치의 한계.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추진

- ✓ 지역/업종/부문별 공제사업을 통해 자주적인 사회연대금융 조성 및 사회연대경제 주체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자금 매칭 및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 주요 목적: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기반 마련
- 기대 효과: 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이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의 협력과 연대 토대를 강화.
② 이를 통한 지역중심의 자주적 기반 확대
- 핵심 사업: 지역 공제조합의 규모와 성과에 따른 활용 자금 매칭, 역량 강화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목표	사업내용
공제사업 운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금 간의 운영 사례 공유: 공제사업 조성 노하우, 대출 및 투자 사례• 공제기금 교육 및 조성 운영 컨설팅
공제사업 운영 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운영 주체와 공제가입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자금조달 및 사업운영 협력체계 구축• 공제사업 모범 사례 발굴 및 강화를 위한 공동의 자금조달 및 협력체계 구축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인 연대와 협력 기반을 강화를 위한 사업연합 모델 개발 및 보급• 사회연대금융 및 연대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논의 및 이슈화• 사회연대금융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제안 및 금융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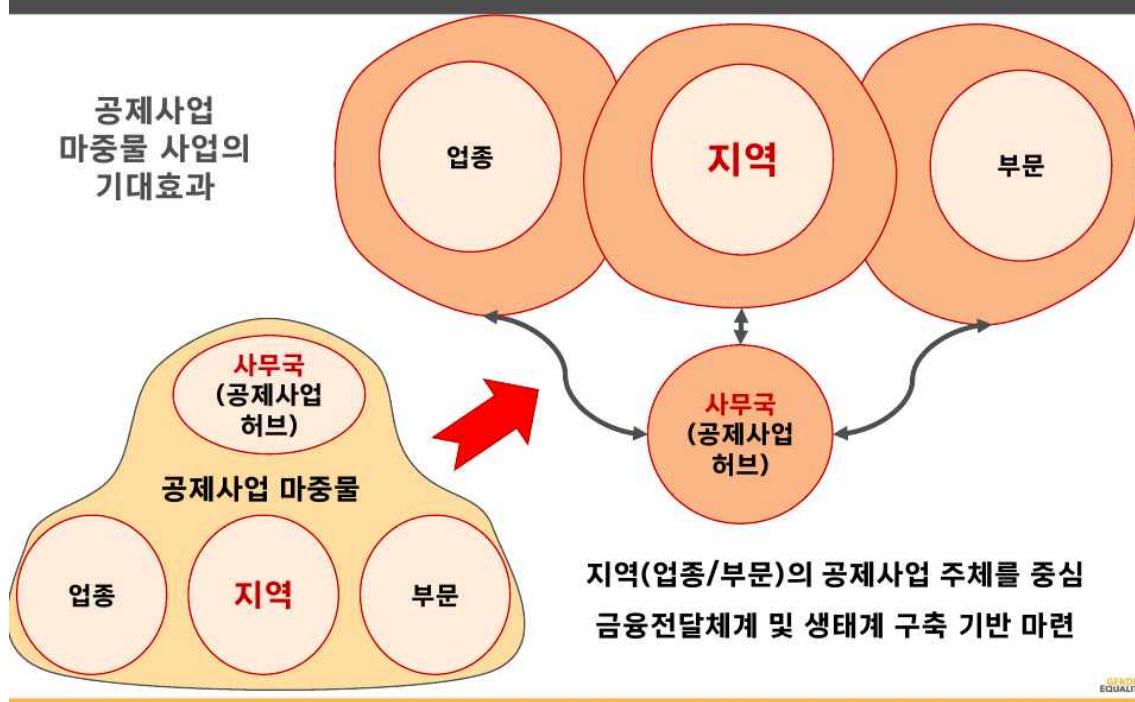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 부족한 공제 규모를 극복하며 지역기반 공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필요
 - 지역(업종/부문)별 공제조합이 규모화 되기까지 현장의 효능감 필요. 이를 위해선 지역별 공제에 참여한 조합이나 기금이 하나의 주머니로 만들어져 필요한 지역에 우선 활용되어야 함.
 - 지역별 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며, 효율성과 함께 효과성 확보가 도모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통한 각 공제사업 운영 및 종합적인 공제사업 운영. 이를 통해 대출사업을 그 이상의 혁신적인 공제사업 운영 경험과 역량을 함께 키우며 전체적인 공제사업도 규모화 할 수 있음.
- ✓ 지역에 운영 경험이 쌓임과 함께 공제 규모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의 행정과 운영 결정권을 우선으로 하여 전국적인 공제사업의 협력체계 유지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중소벤처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립스(LISP) 등에 사회연대경제 참여의 어려움과 걸림돌을 해결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 이 중 다수가 법인격 소상공인에 해당함. 이에 법인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 법인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정책목표와는 차별화된 정책목표(KPI) 설정이 필요함

• (사례) 립스(LISP) 사업 등 사경 기업 참여의 어려움과 걸림돌을 해결 필요

→ 제주도 사례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립스 참여가 거의 불가능함 확인

✓ 사회연대경제의 특징을 살려 성장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이 필요함.

(일반 투자운영사는 사경기업 소싱 육성과 투자자 모집 어려움)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중소벤처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사회연대경제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 파란우산, 보증공제 가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국에 약 1000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지만, 공제를 운영하는 비율은 1% 미만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위의 공제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음
- 사회연대경제의 재무적 가치, 연대의 가치를 평가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 검토 필요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정책추진에 있어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관점 필요

- 정부의 정책적 효과성은 높이면서도 의존성이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업이나 조직 관점이 아닌 생태계 관점 필요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 사회연대경제 증가기관 육성 및 돌봄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 과제 개선 필요
 - [공통] 운영비 지원, 결손 부담
 - [기업]
 - 기업대출한도 확대: 1억 이상. Ex) 서울사회투자기금(3억, 10억 한도)
 - 자격기준 확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소셜벤처까지
 - 상환계획변경의 경직성 완화 필요
 - [개인]
 - 대출 용도 제한 확대: 교육비 · 의료비 · 주거비 -> 생활비 · 고리 대출 대환까지
 - 상환 방식의 경직성 완화 필요(사회연대경제 근로복지기금 임금원천징수)
 - 대출대상 확대 필요(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종사자 만이라도)
 - : 현재 돌봄 시장에 조선족(F4 비자 조선족 등 재외동포) 및 신사회구성원(한국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년 등) 활동이 늘어나고 있나 지원이 어려움.
 - : 전체 운영지침 상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종사자만이라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사회연대경제의 경우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신협(중앙회)

사회연대경제토론회

환경운동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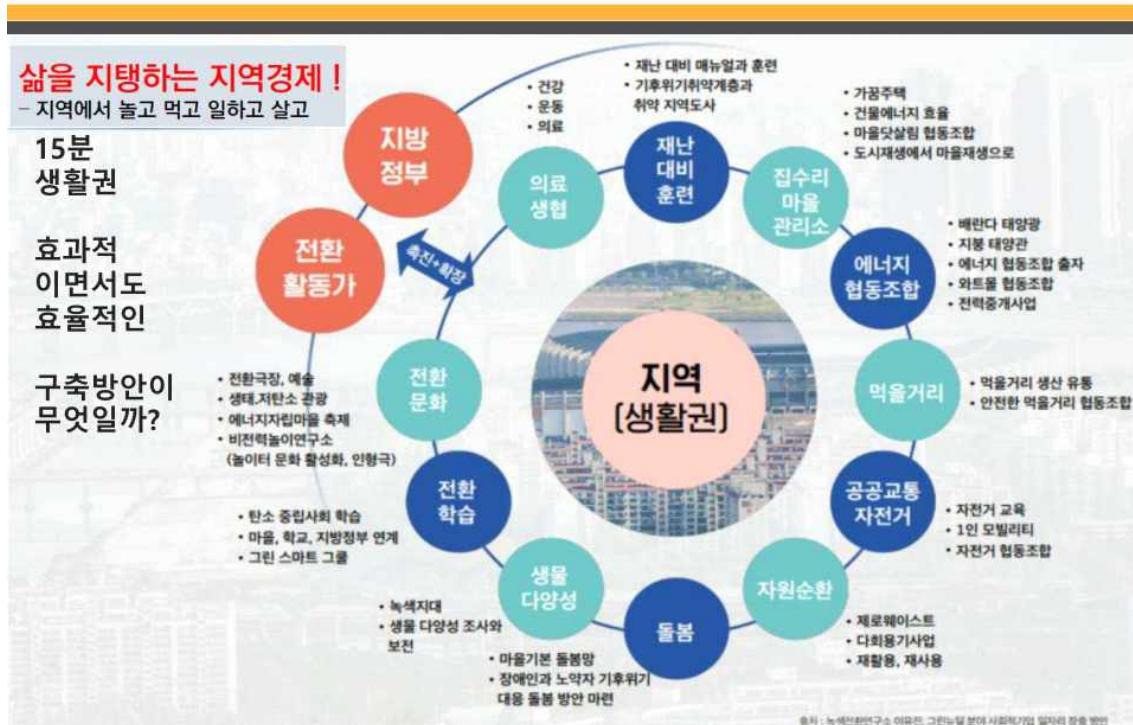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변화되어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탈탄소 생태사회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시스템 변화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신협(중앙회)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신협(중앙회)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이로운넷 '15분 도시'의 모더니티(5), 금융시스템의 사회화



졸업입학 시즌에 꽃값이 지난해 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학부모의 원성이 높습니다. 꽃 생산자들은 온실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사업을 접기도 합니다. 요즘의 꽃은 거의가 온실에서 이산화탄소(CO₂)를 공급해 재배합니다. 온실의 난방과 물류에 드는 에너지, 그리고 꽃의 사료인 이산화탄소 비용이 우리가 지불하는 꽃 값의 거의 전부입니다.

생태 경제학의 또 다른 거장 하워드 오덤은 현대의 거대 도시는 기술적 위업이 아니라 탄소가 대량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덤은 생물군집(생물)과 그 주변환경(무생물) 사이의 관계를 에너지 흐름에 기초한 물질 순환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습니다. 열역학 제1, 2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한 번 써버린 에너지는 결코 복원할 수 없습니다. 오덤은 에너지를 환경적·역학적·사회적현상을 이해하는 토대로 삼아 인간 조직이 그 사회가 의존하는 에너지 종류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열역학 법칙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사용의 관점뿐 아니라 폐기의 관점에서도 측정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은 생산된 에너지보다 발전에 소비된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는 '왜 그런 짓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15분 도시'의 모더니티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도시의 '악마적 속성'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씨를 뿌리고, 일을 만들어내고,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자급자족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융 부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15분 도시'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지원하거나 설립하고, 정부는 그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지원을 보증하는 형태의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자신의 금융적 행위도 사회적 금융에 맞추어 변화 시켜야 합니다.'

GENDER EQUALITY

위기 대응을 넘어 복구를 위한 제안 신협(중앙회)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커뮤니티금융(Community Capital) 활성화

- 기후위기는 지구적 문제이자 지역 문제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분 도시와 같은 실천·대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를 구현함에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시민과 주민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에 요청받고 있는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구호적 연대와 협력이 아닌 지역기반의 실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 이것은 커뮤니티금융과 지역 주체(사회연대경제)가 공동 활용 기금 및 사회적자본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공제사업이 기반이 될 때 빠른 현실화가 가능함.
- 커뮤니티금융은 사회연대금융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호 활성화되며 강화되어 15분 도시를 앞당길 수 있음.
- 개인 조합원을 기반으로 하는 신협의 경우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서 개인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의 구체적 협력을 공제사업을 통해 가능할 것임.

✓ 경기자활기업협회와 5개 신협 협약 등 사례

신협과 협약하여 공제 적립금 중 일부를 보증하여 10배수 대출 등 실행

- 공제기금 운영 법인은 대다수 비영리 법인임. 따라서 신협법의 타법인 출자 허용 개정 없이도 출연(기부) 방식으로 공제에 참여 가능

GENDER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기업공제 성과 1

“우리끼리 돋자”…전국 단위 ‘연대 금융’ 첫발 편다

사회연대경제
공제(자조)사업
Since 2014
(11년 운영 중)

한겨레



사회연대경제 기금

본부회원

지회회원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기업공제 성과 2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출 (저리 인내대출) 누적 1,036건, 462억 원 집행

공제 회원은 부금을 납부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하고, 필요 시 대출 사용

기업공제 성과 3 취약계층 소액대출 1,009건, 66억 집행

금융접근성이 낮아 고리대출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종사자를 위한 소액대출 사업 운영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기업공제 성과 4 12건의 지역/업종/부문별 자조기금 조성 협력. 공동사무국 기능 수행



대구동구사회적경제 우애기금



사회주택 활성화 기금



강원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용인시민기금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자조기금



예술인 보증기금 소액대출



서울 연합택시기금



서울 협동조합협의회 자조기금



[2025년]

서울 협동조합협의회
자조기금

신협과 연대활동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벤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기업공제 성과 4 12건의 지역/업종/부문별 자조기금 조성 육성 협력. 공동사무국 기능 수행



□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자격 : 하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관
- 임팩트금융(자조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기관 (기금 조성 7년 이내)
 - 전년도 선정 기관 재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기관당 최대 2천만 원, 3개 기관 선정 예정

- 본 지원금은 대출, 투자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 가능.
인건비, 회의비 및 각종 비용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

구분	기업명	지역
1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강원
2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
3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대구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벤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운영역량 1 온라인 가입, 신청, 증명서 발급 등 금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화 <https://sefund.or.kr/>

기금가입 신청

> 기금사업 > 기금가입 신청

사회적경제공제기금	<input type="radio"/>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자/업종 특별 기금	<input type="radio"/> 대구동구사회적경제우애기금 <input type="radio"/> 화성사회적경제자조기금 <input type="radio"/> 마포사회적경제자조기금 비상금 <input type="radio"/> 여성사회적경제자조기금 여울복 <input type="radio"/> 춘천사회적경제자조기금 <input type="radio"/> 강원사회적경제공제기금 <input type="radio"/> 용인시민공제조합
청약금(월부금액)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type="radio"/> 만원 ※공제기금 10만원 단위 / 특별기금 5만원 단위
부금 납부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부금 납부기간	<input type="radio"/> 36개월 <input type="radio"/> 48개월 <input type="radio"/> 60개월

신청내용

대출신청금액	<input checked="" type="radio"/> 생계안정자금 <input type="radio"/> 대출대출 <input type="radio"/> 특수 신청 불가	만원 (신청한도: 500만원)
대출기간	<input type="radio"/> 12개월 <input type="radio"/> 24개월 <input type="radio"/> 36개월 <input type="radio"/> 기타	(최대 3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정기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특별히 다른 상환 방식을 원하는 경우 하단 기재
지원금 용도(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주거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양육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품비 <input type="checkbox"/> 유흥상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지갑으로 인한 금융자금	※ 나의 금융자금 기밀정보
지원금 사용 예정일	<input type="text"/>	제작번호 100-0000000-100000 상호명 온라인
부자금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type="radio"/> 미신청	※ 대출금입체액 증명서 발급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소득

자체 (소유자)	1 2021-05-19 2021-05-21 04:48:00 부채납입증명서 승인
전세 (보증금)	2 2021-10-14 2021-10-21 11:25:44 부채납입증명서 승인
	3 2021-11-01 2021-11-04 03:08:08 부채납입증명서 필수
	4 2022-01-07 2022-01-07 11:08 부채납입증명서 승인

개인대출 신청

> 대출사업 > 개인대출 신청

증명서발급

> 기금사업 > 증명서발급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운영역량 2 운영리스크 관리 (개인정보보안, 법률검토, 인적보험 가입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목 차

- [1] 호스팅 제공사(카페24) 보안설정 점검
- [2] 보안 점검 스캐너 리포트(점검 전)
- [3] 보안 점검 스캐너 리포트(점검 후)
- [4] 점검 결과 요약

점검 대상

사이트 명	재단법인 밴드
사이트 URL	https://refund.or.kr
SSL 설치 여부	Yes (만료일 : 2025-10-06 08:58:58)
서비스(포트) 확인	카페24 UTT-8 (PHP5, MySQL5.x)
점검 시작일	2025-09-11
점검 종료일	2025-09-15
보안 점수	점검 전 50.00 / 100 점검 후 84.00 / 100

뽐뿌른아이티 코리아

법률자문 계약서

위임인(2) : 재단법인 밴드
수임인(1) : 법무법인 청장

‘재단법인 밴드’(이하 ‘갑’)과 수임인(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에게 법률자문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갑’에게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의 범위

‘갑’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계적 전문직이고 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기) 필요한 핵심 법률문서의 제작

나) 계약서 및 서류의 검토

다) 소송, 민원 등과 같은 행정 및 민사 분쟁 사건과 인적·환경 사건과 같은 사건

라) 기타 일반 법률문서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법률문서의 제작

제3조 보수의 기준

‘갑’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기간 동안 보수율 금 8,000,000원(부과기과세 별도)
이후 보수율을 지급하는 경우 보수율 금 500,000원을 차감할 수 있다.

나) ‘갑’이 아래 각 항과 같이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에는 ‘갑’은 ‘갑’의 행위에 따라 별도로 보수율을 차감하기로 하고, 보수 산정의 기준은
구성원총액에서 200,000원(부과기과세 200,000원)이상으로 한다.

다) 법률, 학회, 협회 등의 조언변론, 자문과 같은 전문가의 조언, 법률자문, 법무조회, 법무의 해
선 등 법무의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보수율을 한다.

라)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계적 전문직이고 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마)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계적 전문직이고 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라) 기타 일반 법률문서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법률문서의 제작



Baoli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신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 100-000-2023 0301 5804		초	
발행기관	ETI-BD-T4091	보증기관	ETI-BD-T4393
제작자는	제작자는	제작자는	제작자는
보험기간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44, 날짜)	보험료	₩ 514, 500원

증권번호 : 100-000-2023 0301 5804		초	
증권번호	ETI-BD-T4091	보증기관	ETI-BD-T4393
제작자는	제작자는	제작자는	제작자는
보험기간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44, 날짜)	보험료	₩ 514, 500원

증권번호 : 100-000-2023 0301 5804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운영 역량 4

사회적금융 온라인 교육(강좌) 4년 차 운영 중

<https://impactfinance.ksenet.org/>

임팩트금융 아카데미

임팩트금융 소개 동영상 교육사항 커뮤니티 최근 활동

임팩트금융 빌드업 과정

수료증 발급하기

최고관리자님의 현재 수강률 **100%** (9/9) | 현재 동영상 시청이 완료된 수강률입니다.

0% 25% 50% 75% 100%

수강
사회적금융과 사회적 가치
임팩트 투자의 이해
SIB의 이해

1회차 사회적금융의 개념 및 전망
2회차 사회적금융과 사회적 가치
3회차 임팩트 투자의 이해
4회차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이해

00:00:00 01:14:19 00:00:00 00:45:27 00:00:00 01:26:37 00:00:00 01:11:20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비전/미션	강원 지역 사회적경제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 포럼 등 정책제안 ○ 조직사업 : 회원 확대, 회원 참여사업 및 소통 강화, 회의구조 안정적 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 사회적금융, 기부유치, 연대협력, 인프라 조성 ○ 공제운영 전문기관((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2012년~) : 강원마을기업지원기관(2013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2014년 ~ 2023)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2015년 ~ 2023)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2021~) : 강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2~) 								
주요 활동 (최근 3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2025</td> <td>2024년 서민금융 지원사업 수행기관 최우수평가 기관 수상(센터)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운영 - 강원이관(운영기관:센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변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td> <td>폐광지역 소셜임팩트 창출 소기업 이자지원 및 대출사업(강원랜드) 강원도 사회적경제 임팩트투자 IR경연대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조성 개시 / 연대, 센터, 밴드</td> </tr> </table>	2025	2024년 서민금융 지원사업 수행기관 최우수평가 기관 수상(센터)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운영 - 강원이관(운영기관:센터)	2024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변경	2023	폐광지역 소셜임팩트 창출 소기업 이자지원 및 대출사업(강원랜드) 강원도 사회적경제 임팩트투자 IR경연대회	2022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조성 개시 / 연대, 센터, 밴드
2025	2024년 서민금융 지원사업 수행기관 최우수평가 기관 수상(센터)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운영 - 강원이관(운영기관:센터)								
2024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변경								
2023	폐광지역 소셜임팩트 창출 소기업 이자지원 및 대출사업(강원랜드) 강원도 사회적경제 임팩트투자 IR경연대회								
2022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공제) 조성 개시 / 연대, 센터, 밴드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기금 회원 현황

구분	부금		합계
	월부금	특별공제	
기업 및 기관	64개소	4개소	68개소
현 납입금	383,300,000원	33,000,000원	416,300,000원

○ 공제 대출현황

대출건수	대출액	상환액	상환율	비고
31	511,600,000원	278,476,000원	49.7%	상환중 22건

○ 자조기금 조성 규모 : 852,400,000원

구분	조달 재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기자본	기부금, 지원금		40,000,000	4.7%	KSD나눔재단 24년 2천만원, 25년 2천만원
	회원 부금		416,300,000	48.8%	월부금: 383,300,000원, 특별공제: 33,000,000원
타인자본	정책자금		100,000,000	11.7%	강원도청 2억원 매칭자금 24년 말 회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1억원
	강원랜드		296,100,000	34.7%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매칭
	합계		852,400,000	100.0%	

GENDER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사회연대경제토론회

비전/미션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 연구 및 제반 지원사업으로 “관계가 신용이 되고 가치가 담보”가 되는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 대구사회가치기금의 조성과 확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및 기타자금 연계 및 조성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조기금 운영 “ESG” 확산 및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
주요 활동 (최근 3년)	2022년 4월 25일 창립총회 실시.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으로 명명 5월 31일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설립 등기 2023년 대구사회가치기금(공제부금) 가입사업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약기금 매칭 대출사업 2024년 한국가스공사기금 대구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업 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태양광패널 지원사업 IM뱅크, 한국부동산원, 한국예탁결제원KSD나눔재단 지원 지역통합돌봄 IR투융자 사업

GENDER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기금 회원 현황 (25.10월말 기준)

가입사 수	약정금액	총납입금액	월평균납입금액	부금대출
48개소	783,900,000원	292,500,000원	14,000,000원	232,500,000원

○ 자조기금 조성 규모 : 1,639,900,000원

구분	조달 재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기자본	법인 적립금	70,000,000	4.3%	조합출자금 및 법정적립금
	기부금, 지원금	1,077,400,000	65.6%	기부금, 지원금 및 사업을 통해 조성한 금액 * KSD나눔재단 지원금 포함 *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IM뱅크 등
타인자본	회원 부금	292,500,000	17.9%	대구자조기금(48개소)
	협약 기금	200,000,000	12.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2억원
합계		1,639,900,000	100.0%	

GENDER EQUALITY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토론회

비전/미션	제주 사회적경제 기관들의 실천적 협력과 연대강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실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 포럼 등 정책제안 ○ 조직사업 : 회원 확대, 회원 참여사업 및 소통 강화, 회의구조 안정적 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 사회적금융, 기부유치, 연대협력, 인프라 조성 ○ 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https://jejuhub.org) (2016년 ~ 현재) 도민이 체감하는 상생의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거점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2019~) : 제주시 새활용센터 (https://www.jcuc.org)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새활용과 순환경제의 시민 공유 플랫폼 : 제주패스파인더 (https://www.jejudpathfinder.org) 청년의 구직난념을 예방하고 진로탐색, 취업준비를 돋는 길잡이 :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지원사업 	
주요 활동 (최근 3년)	2025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민간위탁사업 개시(2025~2027)
	2024	카카오 인터넷하는돌하르방 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기관 위탁 (~ 2025)
	2023	카카오 제주 임팩트챌린지 사업, 제로웨이스트캠페인지원사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운영
	2022	제주사회연대기금 '제주고팡' 사업

기업기반 공제사업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토론회

○ 기금 회원 현황

구분		부금			출연	합계
		월부금	일시납	부분일시납		
가입자	기업	11개소	11개소	1개소	5개소	28개소
	개인	-	-	-	7명	7명
납입금		90,820,004원	65,000,000원	1,000,000원	44,060,000원	200,880,004원

○ 자조기금 조성 규모 : 410,880,004원

구분	조달 재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기자본	법인 적립금	20,000,000	5%	
	기부금, 지원금	84,060,000	20%	기업: 5개소, 개인 7명 44,060,000원 한국예탁결제원KSDL나눔재단 40,000,000원
타인자본	회원 부금	156,820,004	38%	월부금: 90,820,004원 일시납: 65,000,000원 부분일시납: 1,000,000원
	정책자금	150,000,000	37%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1.5억원
합계		410,880,004	100%	

GENOVA EQUALITY

Epilogue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막 녹화작물은?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살리코니아(Salicornia, 염생식물)

- 식염수(바닷물)로 재배 가능
→ 사막의 염분 높은 토양에 적합
- 뿌리가 깊어 사막 토양 고정 효과
- 바이오연료, 식용, 사료로 활용 가능해
경제성·환경성을 동시에 확보
- UAE, 사우디,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사막
농장 조성 사례가 있음



© Karim Sahib/AFP

공제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에 있어 **살리코니아**와 같음

GENOVA EQUALITY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연대경제토론회



지정토론

이다운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지역 지원을 연계하는 중개기관으로서 공제의 역할, 지방정부의 마중물

(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이다운 기업지원팀장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와 맞닿아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강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특히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공제기금'이 대표적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공제기금에 대한 관심과 학습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대표하는 당사자 조직인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이하 연대)가 발족하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기금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조직되었습니다. 2022년,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제기금 전문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이하 밴드)가 기금 운영을 맡고,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공제기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제의 마중물 역할, 강원도의 매칭 지원

강원의 공제기금 조성은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초기 공제기금 조성에 지자체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간이 공제기금을 모으면 1:1로 매칭하는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공제기금 초기 씨드머니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장의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공제 가입에 대한 지지기반이 되어 주며 공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가 총 2억원의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지원의 자격 조건으로 강원공제 가입을 유도하여 공제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2년 21개 회원사로 시작한 강원 공제기금은 2023년 61개소가 새롭게 가입하며 가입 기업 80개소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공제기금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강원도 씨드머니 2억원 회수 결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립 운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공공자금 확보를 비롯하여 후원, 특별공제 조성과 같은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의 연결자, 기획자로서 공제의 역할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공제기금은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혼합금융 지원입니다.** 2023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임팩트 투자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거쳐 육성된 6개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임팩트투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온세까세로)은 강원사

회적경제연대 공제기금에서 조성한 특별공제기금 5천만원 대출과 엠와이소셜컴퍼니의 지분투자 1억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이어 P2P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전용 융자상품, 앤젤투자 등을 혼합하여 약 16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공제의 주체인 강원사회연대경제와 지역에서 공제의 실질적 실무를 담당했던 강원도지속가능지원센터가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외부 금융자원의 조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련한 자체 자금이 먼저 참여함으로써 외부 금융자원의 참여를 설득할 수 있기에 **강원사회연대의 특별공제로 마련한 5천만원은 전체 16억원에 비하면 비중은 작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사업에 편중된 자금조달 형태에서 벗어나 금융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출, 투자, 크라우드펀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강원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조직하고, 기금사업을 조성하여 운영하기까지 민·관의 운영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원과 자금을 적재적소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후속지원을 통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꾸준히 육성할 수 있습니다.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공제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업 확장, 지역사회 공헌,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성과 확산에 기여하는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효능감을 느끼는 문제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강원공제의 최대 대출한도는 사업 규모 대비 상환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업별 2천만원으로, 긴급 운영자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회원사의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 등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대출 사업 중에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전용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강원 지역 기업의 수요 대부분이 최대한도인 1억원입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수요에 비해 지역의 공제기금 공급 규모는 아직 소소한 수준입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을 소망합니다.

지정토론

김지영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언: 인내 자본, 연대 책임, 그리고 마중물 지원의 역할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 김지영

I. 서론: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새로운 역할 공제사업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SSE)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 금융을 넘어선 포용적 자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SSE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제사업(Mutual Aid Business)**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토론문은 인내 자본의 장기적 지원, 대손에 대한 연대 책임 구조, 그리고 우호적 인수·합병이라는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民間의 전략적 마중물 지원 필요성을 대구 사회가치금융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합니다.

II. 자생력 확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기능

1.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공급의 장기적 순기능

인내 자본은 단기 재무 성과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임팩트 달성을 우선하는 자본입니다. SSE가 사회적 미션을 고수하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찾은 투자 회수 압박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2. 대손 연대 책임과 우호적 M&A구조의 구축

지역 사회적금융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실패를 공동체의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연대 책임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대 책임 구조가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우호적 M&A(Favorable M&A)를 통한 사회적 자산 보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략적 마중물 자본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목적	메커니즘	기대 순기능
대손 공동 보존	지역 SSE, 시민, 중개기관이 자조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대손 발생 시 공동의 충당금으로 활용 (공제사업의 핵심)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경감, 참여자의 주인의식 및 연대 강화.
우호적 M&A 촉진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SSE를 사회적 미션을 공유하는 역량 있는 지역 SSE나 주체가 인수하도록 금융 중개기관이 구조화.	일자리와 사회적 미션의 보존. 단순 폐업을 막고, <u>지역사회 내 자산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순환됨.</u>

이러한 연대 책임 구조는 지역 금융의 위험을 '개인 책임'에서 '공동체 책임'으로 전환하여, SSE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사회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 금융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III. 지역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중물 지원' 제안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공제사업 주체로서 위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 비용과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중개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전제로, 다음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지원 필요성

지원 주체	핵심 제안	지원 내용 및 필요성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규모 확대 및 권한 위임]	1. 예산 규모 5배 이상 확대, 신규 중개기관 확대 및 지역 중개기관 육성 목표 설정 2. 운영비 지원 및 결손 부담 의무화: 중개기관의 인적, 행정적 안정성 확보 및 대손 연대 책임 분담.
	[대출 유연화 및 포용성 강화]	3. 기업 대출 한도 확대: 현재 최대 1억 → 3억(일반), 10억(소셜 프로젝트)까지 유연하게 확대.
		4. 지원 자격 확대: 현재 사협, 인증사회적기업 중심 →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등 포괄적 확대.
		5. 상환 계획 유연화: 만기일 경직성 해소 및 SSE의 사업 주기(사이클)에 맞춘 유연한 상환 계획 변경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성장 지원 사업 특화연계]	1. 법인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사회연대경제 특화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2. LIPS, 강소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VC의 지역 중개기관 연계 투자 시범 운영을 통해 인내 자본의 유입 촉진.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제사업 마중물 사업]	지역 중개기관 단위에서 공제사업(마중물 펀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시범 지원. (시범 사업 중개기관 지정 4곳 * 5억 : 향후 5년간 마중물 지원)
신용협동조합 (신협) 등 민간 협동 금융	[민간 공동 기금 운영 시범 사업]	1. 신협이 사회공헌기금을 각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후원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 기금 운영 시범 사업 추진. 2. 민간 연대 자본의 모범 사례 제시 및 자금 모집 채널 다변화.

2. 대구 사회가치금융재단 임팩트 펀드(사회책임기금) 사례

대구는 2025년부터 지역 SSE의 자조와 연대 의지를 담은 '대구 임팩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및 민간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극대화되어야 할 자조 기금의 모범 사례입니다.

- **임팩트 펀드 조성 원칙:** 지역 SSE가 매출의 0.1% 또는 순이익의 1%를 책임 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조성합니다. (이탈리아 사례와 유사)
- **펀드의 4대 역할:** 이 펀드는 인내 자본 공급 및 대손 보존을 포함한 네 가지 핵심 기

능을 수행합니다.

1. **기업 지원 (Support):** 경영 컨설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2. **전략적 투자 (Investment):** 성장 가능성이 높은 SSE에 인내 자본 공급.
3. **커먼즈 구축 (Commons):** 공동 이용 시설, 플랫폼 등 지역 기반 공유 자산 조성.
4. **대손 보존 (Bad Debt Conservation):** 연대 책임 구조하에 대손 충당금 역할 수행.

IV. 해외 지역 사회적금융 및 공제사업 매칭 펀드 운영 사례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은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과 민간의 사회적 투자 유입이 필수적 인데, 해외 선진 사례들은 매칭 펀드 구조를 통해 자금의 효율성과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서민금융진흥원, 중기부, 행안부 예산 확대 제안과 신협 공동 기금 운영 제안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합니다.

1.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 대규모 공적 매칭

미국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은 정부 주도의 매칭펀드 운영을 통해 지역 개발 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1.1. Capital Magnet Fund¹⁾ (CMF) 및 CDFI 프로그램

구분	내용	한국 시사점
주체	미국 재무부 산하 CDFI Fund (연방 정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대폭 확대
재원	정부 지원 주택융자기업(Fannie Mae, Freddie Mac) 등	공적 기관의 법정 의무 출연금 확보
목표	저소득층 주거 지원, 지역 경제 성장, CDFI 육성	지역 중개기관을 인증 및 육성하는 제도적 마련
매칭 구조	공적 자금 \$1당, 민간 자금 \$10 레버리지 의무	1:10 의무 매칭을 통해 민간 자금 유인 극대화

핵심 특징: CMF를 지원받는 지역개발금융기관 및 주거 관련 비영리단체는 받은 교부금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5년 이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해야함. 이는 정부 자금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중개기관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역량과 책임을 부여하는 강력한 정책설계임**.

1) Capital Magnet Fund (CMF)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이 운영하는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로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조성된 매칭 펀드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및 경제 성장이 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1. **자금 출처:** 재원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택융자기업인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서 조달됩니다. 이는 공적 성격을 띠면서도 특정 공공 목적을 가진 기업의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1. 운영 방식 (매칭 메커니즘):

- CMF는 자금을 직접 개인이나 기업에 지원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인증된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및 주거 관련 비영리단체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핵심 의무 (매칭 조건):** 선정된 기관은 CMF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비연방 자원(민간 투자, 기부금 등)을 5년 이내에 유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강력한 **1:10 의무 매칭 구조**는 정부 자금이 민간 자본을 지역 개발 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Leverage)** 역할을 극대화합니다.

요약하자면, CMF는 정부의 제도적 틀을 이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적 매칭 펀드 사례입니다.

2. 미국 사회 혁신 기금 (Social Innovation Fund, SIF) - 2단계 레버리지

SIF는 연방정부 자금을 사회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식이며, 두 단계에 걸친 다중 매칭을 요구하여 자금의 파급력을 높였습니다.

2.1. SIF의 다단계 매칭 시스템

구분	단계 1 (중개기관)	단계 2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 시사점
매칭 주체	연방 정부 → 중개기관	중개기관 → 사회적 서비스 제공 기관	증기부, 서금원이 지역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
매칭 비율	중개기관은 정부 지원금과 1:1로 비연방 지원 매칭	서비스 제공 기관은 중개기관 지원금과 1:1로 기타 기부금 매칭	지역 중개기관의 자금 모집 의무화 및 자발적 기여 유도

핵심 특징: 이 2단계 레버리지 모델은 정부 자금 \$1이 최종적으로 \$4 이상의 비정부 자금을 유치하는 효과를 낳음. 이는 자금의 전달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민간 및 자선 기부금이 사회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기부 문화의 제도화를 촉진.

3. 이탈리아 쁵폰드 (Coopfond) - 협동조합 자조(公濟) 기금

Coopfond는 정부의 직접적인 매칭 펀드는 아니지만, 협동조합 공제사업(Mutual Aid)의 자발적이고 제도화된 모범 사례로 한국 신협의 공동 기금 운영 제안에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한국 시사점
주체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회(Legacoop) 소속 협동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의 사회공헌기금 활용 모델
재원 조성	소속 협동조합들이 수입의 3%씩 법정 의무 출자	민간 금융 기관의 사회공헌기금(또는 의무 출연금)을 지역 사회적금융에 시스템적으로 연계
운영 방식	이탈리아 내 14개의 지역 기금 운영, 기술 개발,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에 사용	지역 중개기관이 자금을 운영하고 공동기금으로 연대 결손 부담

핵심 특징: 이탈리아는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의 수입 일정 비율을 연합회에 출자하도록 의무화 하여, 이 자금을 협동조합 발전 및 자조 기금으로 활용. 이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자발적 연대와 책임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지원하며, 신협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공동 기금 운영 시범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

[참고] [사회적금융의 상상⑤]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과 협동금융_LIFEIN Coopfond: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최대규모 협동조합 연맹인 Legacoop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개발기금으로 Coopfond는 Legacoop 소속 개별 협동조합들이 수입의 3%씩 출자해 조성된다. 이탈리아 내 14개의 지역 기금을 운영 중이고, 기술개발, 고용, 신규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 확장,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전환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

Banca Etica (윤리적은행), CFI (정부기금), Coopfond (협동조합 연합체 기금), 실업/퇴직 수당 (노동자들의 자조기금) 등 이렇듯 다양한 금융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노동자들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1년 뒤인 2017년 공장부지, 장비 등을 포함해 회사를 인수하여 단테 노동자협동조합 (CFD, Cooperativa Fonderia Dante)을 설립한다. 조합원은 공장을 인수한 뒤 방카에티카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를 재원으로 구식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사업발전 전략을 함께 재수립하여 보일러를 하도급하고 차량의 부품인 브렘보 디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이뤄낸다.

이러한 노력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첫해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시간당 1만7천kg의 주물을 생산하고 8만 개의 보일러, 1백만개의 디스크를 연간 생산하는 연매출 1,500만 유로 회사로 성장했다.

방카에티카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요구해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과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단테는 2017년~2020년 2백만 유로의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R&D 연구에 투자하는 한편 공장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돋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테는 폐업의 직전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뒤 매출이 35% 상승하고 현재 20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

V. 결론: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

지역 사회적금융의 성공은 인내 자본, 연대 책임, 우호적 M&A라는 세 가지 순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 사례처럼, SSE의 자발적 참여 (공제부금 및 책임기금)와 정부/민간의 전략적 마중물 지원이 결합될 때,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비로소 지역 공제사업의 주체로서 금융 포용성과 지역 자본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은 지역 자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인내자본 조성 지원 및 결손 부담'이라는 과감한 마중물을 투입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기관명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대표자	백승대
고유번호	821-82-00378	전화번호	053-292-4300
홈페이지	https://dgsefund.or.kr/	설립연월일	2022.05.31
비전/미션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 연구 및 제반 지원사업으로 “관계가 신용이 되고 가치가 담보”가 되는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사회가치기금의 조성과 확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및 기타자금 연계 및 조성 ▣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조기금 운영 ▣ “ESG” 확산 및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 		
주요 활동 (최근 3년)	<p>2022년 4월 25일 창립총회 실시.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으로 명명</p> <p>5월 31일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 설립 등기</p> <p>2023년 대구사회가치기금(공제부금) 가입사업</p> <p>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약기금 매칭 대출사업</p> <p>2024년 한국가스공사기금 대구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업</p> <p>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p> <p>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태양광패널 지원사업</p> <p>IM뱅크, 한국부동산원, 한국예탁결제원KSD나눔재단 지원 지역통합돌봄 IR투융자 사업</p>		

○ 기금 회원 현황 (25.10월말 기준)

가입사 수	약정금액	총납입금액	월평균납입금액	부금대출
48개소	783,900,000원	292,500,000원	14,000,000원	232,500,000원

○ 자조기금 조성 규모 : 1,639,900,000원

구분	조달 재원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기자본	법인 적립금	70,000,000	4.3%	조합출자금 및 법정적립금
	기부금, 지원금	1,077,400,000	65.6%	기부금, 지원금 및 사업을 통해 조성한 금액 * KSD나눔재단 지원금 포함 *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IM뱅크 등
타인자본	회원 부금	292,500,000	17.9%	대구자조기금(48개소)
	협약 기금	200,000,000	12.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2억원
합계		1,639,900,000	100.0%	

지정토론

문성식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생태계 강화방안

LIPS 사업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매칭시도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문성식 사회적금융TF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주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자조기금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축소와 장기적인 불황을 동시에 경험하며 전례 없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이 배정되며 지역 내 지원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재정 지원 축소의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은 기존 자원 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탐색해왔을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24년에 자조기금인 '제주고팡'을 기반으로 LIPS(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까지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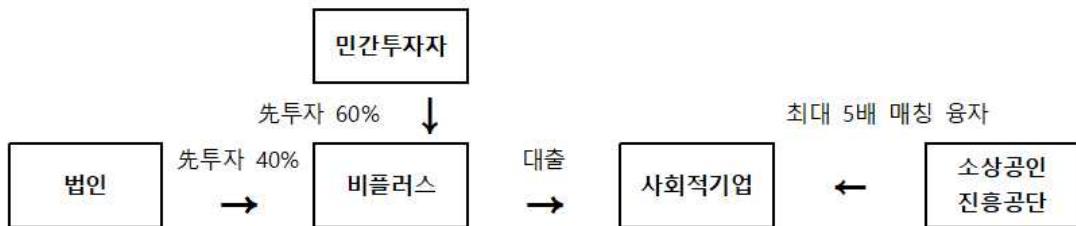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LIPS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게 기대했던 것 만치 호의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는 허들이 두 개 존재했는데요. 하나는 엑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를 정책전달의 매개로 삼았던 설계로 인해 기존에도 정관의 자산잠금(Asset Lock)과 낮은 수익성으로 투자신에서 외면받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는 점과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특성 상 매출대비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로인한 소상공인 자격 미충족이 주요한 허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행 LIPS 사업 구조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트랙(가칭 민간자조금용 트랙)'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지역 내 취약생산자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A 사례

첫 번째는 제주의 한 창의혁신형 인증사회적기업의 A사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지역 내 소규모 양조장들의 제품을 큐레이션하고 패키지를 재구성하여 유통함으로써,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양조장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역 내 사업확장을 예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LIPS운용사를 매칭하여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짜고 KSD나눔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투자대상을 찾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을 채우다가 이미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겨우 찾아낸

A기업을 대상으로 비플러스를 통해 펀딩을 열었고 가치를 알아본 시민들이 결합하여 KSD나눔재단 1천만, 제주사회적경네트워크 1천만, 일반시민 3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이 자금에 LIPS 매칭 융자(3배수, 약 1.5억 원)를 더해 구도심 내에 전통주 페어링 거점을 조성하고, 온라인 채널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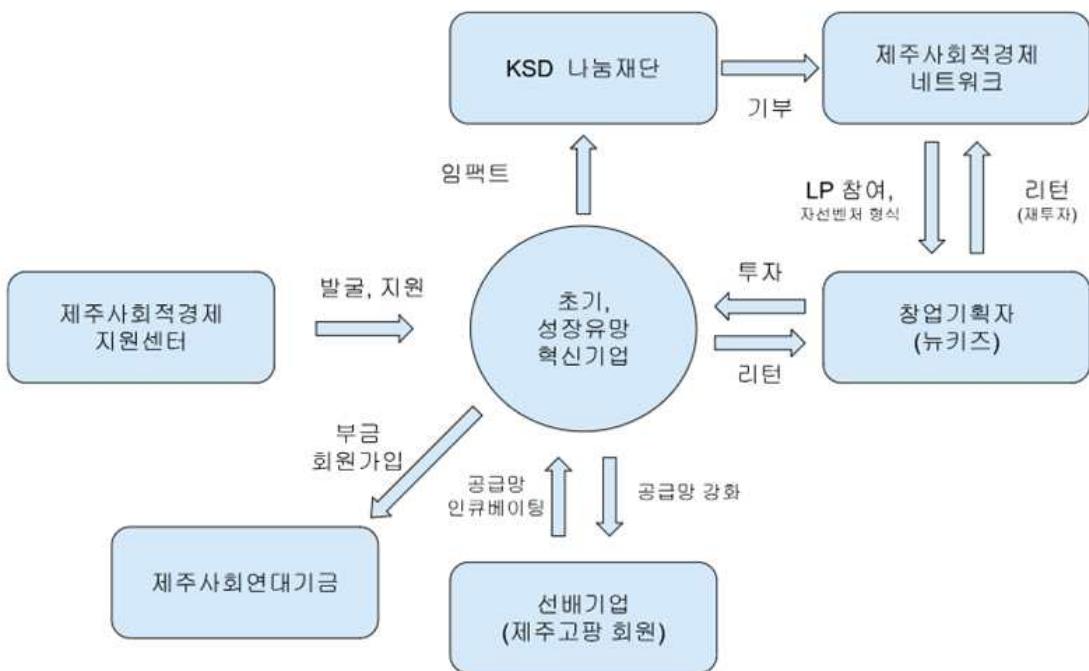
[그림1] LIPS 매칭을 위한 P2P대출 활용도

그러나 결과는 LIPS 탈락이었습니다. P2P대출로 인해 늘어난 부채에 다시 부채를 더하는 LIPS의 구조적 한계와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기업은 신규 사업장 조성을 목전에 두고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경영이 일부 정상화되었습니다.

[사례 2] 개인투자조합 참여를 통한 LIPS2 연계 전략의 수립과 어려움

저희 네트워크는 올해 KSD나눔재단의 지원을 받판 삼아 뉴키즈인베스트먼트와 협업하여 '임팩트 제주 1호 투자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투자조합원 모집에서부터 회수(Exit)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AC가 가지고 있던 투자자풀에 사회적기업, 심지어 인구 70만의 작은 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시장을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합결성 후에도 투자처를 찾는 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조합에서 특정 시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했는데 AC에서 운영한 배치(Batch)프로그램의 최우수기업이 공교롭게도 협동조합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수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협의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림2] 기부재원을 활용한 엑셀러레이터 협력사업 구조도(KSD나눔재단 후원금)

현행 제도상 LIPS의 매칭 추천 권한과 투자의사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운용사(엑셀러레이터)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 아무리 지역 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더라도, 운용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거나 "LIPS는 다른 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면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조합 결성에만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운용사와 지역 네트워크 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든 비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법인 투자자와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직접 모집해오는 등 펀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펀드"를 만들었으나, 정작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정책 제안: LIPS 내 자조금융 기반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 신설

많은 수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각자의 사회적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높지 않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상당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PS 사업 내에 '사회연대경제 주도형 트랙(가칭 민간자조금융 트랙)' 신설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이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요구입니다.

1) 운영 주체의 다변화: 중간지원조직 및 당사자 연합체에 실질적 운영권 부여

기존 전문 투자사(VC/AC)의 투자 외에, 비영리 사회연대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 혹은 당사자 연합체(네트워크)등을 LIPS 민간자조금융 트랙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지역 내에서 적정한 재무적인 가치(EV)를 창출하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선별해 낼 수 있는 탁월한 '안목'과 '현장성'으로 연대경제의 성장로드맵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인내자본'으로서의 성격 강화

사회연대경제의 성과는 단기간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트랙은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인내자본'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회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는 경우에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차액은 보전해주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회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LIPS는 분명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운용방식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면 낙후되어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에 분명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고,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조직이 스스로 운용하고 책임지는 '민간자조금융 트랙'을 함께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김남철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차장

신협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목 차

1. 신협 공제 현황
2. 발제에 대한 의견
3. 신협의 사회연대공제 사례
4. 신협 사회연대공제 방향



1. 신협 공제 현황

<2025.10월 말>

총 자산 : 6조 1,471억원, 자본 2,063억원, 지급여력 337.0%

[신협 공제 연혁]

- 미국신협 전국연합회 공제(CUNA MUTUAL)를 기반으로 출발
1935년 CUNA Mutual Society 설립, 대부보증공제(LP, loan Protection 시작)

[한국신협 공제 연혁]

1964.4 신협연합회 창립

1971~1973년 CUNA Mutual 자금지원(\$18,000), 공제사업 시작

1972.8 신협법 제정, 공제사업 법적근거 마련

1996년 소득세법 개정(소득공제 대상)으로 제도권내 보험사업

2000.4 금융감독위원회 공제규정 인가

2003.1 CUNA Mutual Insurance와 생명공제, 신용장해공제 협약

2012.9 공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



1. 신협 공제 현황

- 초기 신협 운동에 있어 공제사업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역할
: 금융 + 공제(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 기반)
 - 공제사업 이익의 신협 내 유보, 조합원에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한 공제
서비스 제공
 - 자기사용자금 조성 : 신협과 조합원 내지 조합원 상호간 인간적 유대 강화
하여 협동조합의 운동성 증진에 기여
- 현재 신협 공제는 1996년 보험업 진입으로 신협 초기의 공제 본연의 의미
인 호혜와 연대, 상호부조 역할보다는 민간 보험사와 경쟁하는 보험사업
자로 운영 중



2.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

1. 연대와 금융생태계 구축의 주춧돌, 지역공제사업 - 하재찬
 -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조기금 적립 필요 / 자체 공제사업(금융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역내 신협을 통한 금융창구 활용 가능
신협 상생협력대출(지자체협력대출 연계)은 이차보전으로 저리
 - > 상호이용과 협력 필요

2.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 문진수

- > 신협의 공제는 초기 협동조합의 공제가 아닌 보험업으로 변형
- > 사회적경제기업(네트워크)의 자조기금을 담보로 한 신용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될 듯
- > 평택사경(경기제일신협) 사례, 한국스마트협동조합(태릉신협)가 주목



3. 신협의 사회연대공제 협업 사례

□ 태릉신협 (한국스마트협동조합)

○ 예술인 상호부조대출 운영 사례

- 2024.5월 태릉신협- 한국스마트협동조합간 예술인 상호부조대출 업무 협약
- 내용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자조기금을 태릉신협에 예치하고 예술인을 대상
대출 실행, 연체 발생시 기금을 대위변제금으로 충당
- 대출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추천서 받은 예술인
- 한 도 : 신용대출, 1인당 300만원 한도(원리금 분할상환, 연장가)
- 금 리 : 5%
- 최저 대손충당금 준비금 비율 : 대출금액의 15%
ex) 자조기금 100만원 -> 대출가능금액 660만원(2.2명 대출)



3. 신협의 사회연대공제 협업 사례

□ 태릉신협(한국스마트협동조합)

○ 운영현황

- 2025.10월 현재 누적 86건 258백만원(62건 123백만원 유지)
(20건 정상 상환, 9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대위 변제)
- 2025.12.2일 신협중앙회 상호부조기금 용도 1500만원 후원(비용성, 소멸성이 아닌 예술인 대출 재원인 상호부조기금 용도로 사용을 한정하여 후원)
- 자조기금 잔액 49백만원(대출 가능금액 328백만원)
- 의의 : 저금리 신용대출, 예술인의 긴급 생활비지원으로 예술인 고금리 대출 해방

(신협의 설립 취지 부합하고, 창작과 문화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신협의 사회연대공제 협업 사례(사회적경제융자사업)

□ 경기제일신협(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 2022.9월 자조기금 협약(기간 2026.10.31일)

- 초기 신협 전 이사장이 기부를 통해 기금조성하여 융자사업(저리)을 도모하였으

나 법적문제 및 영세성, 대출 전문성 부재로 실행하지 못함

- 4개 기관 참여(평택협동조합사회네트워크사협, 경기제일신협, 한국가치연대 기금)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자조기금을 신협 통한 대출사업 진행

- 대출금리 최저 1%, 기간 : 2년(최대 4년), 동일 기업당 최대 3천만원
(경기도 지자체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하여 차주 이자부담 낮춤)
- 신협 역할 : 대출심사 및 실행, 연체시 이자 2/3의 신용위험 부담



3. 신협의 사회연대공제 협업 사례(사회적경제융자사업)

□ 경기제일신협/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 운영현황
 - 2025.10월 기준 자조기금 221백만원
 - 대출 누적 9건 221백만원(잔액 7건, 168백만원)
 - 평사넷과 한국가치연대기금의 출연금을 경기제일신협에 **사회적예탁금**으로 예치
 - 하고 예탁금을 담보로 **상생협력대출(경기도 이차보전 연계)**을 취급
- * 신협사회적예탁금 : 예금주 0.5%+신협 0.5%(1%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ex 1억원 예탁, 만기시 100만원의 해당 사회적경제기업 자조기금 조성)
- ** 상생협력대출 : 신협 이차보전 담보 0.6%, 신용 1.2%
경기도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차등 지원 최대 2.5%(5년)
연체시 신협이 해당 연체이자 2/3 부담(1/3만 채무자 부담)



4. 신협 사회연대 공제 방향

□ 당사자 연합조직과의 상호이용 및 협업 강화

- 신협이 구축한 금융인프라를 공공재로 활용 필요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신협 사회적예탁금**(연대저축상품)을 통한 **자조 재원 마련**
- 신협중앙회 차원의 공제의 주체 니즈 충족 금융 시스템 개발
 - 각각의 공제주체들의 다양한 니즈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금융지원 인프라 개발
- 지역내 사회경제조직과 네트워킹 강화
 -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주체



지정토론

이미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회적금융지원팀장

지정토론

최서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

지정토론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종합토론

MEMO

MEMO
